

# 군산남중 이전 · 신설 추진

### 학교 구성원 찬반투표 결과 참여자 70.7%가 '찬성'... 2027년 3월 목표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은 군산남중학교 이전·신설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7년 3월 예정으로 동북부권 조촌동 디오션 시티 내 학교 부지로 이전·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군산교육여버너스위원회에서 동북부권 이전·신설 대상학교로 '군산남중학교'를 권고함에 따라 24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전·신설 제안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24~25일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 총 1,077명 중 70.7%인 761명이 이전·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돼 군산남중학교를 최종 이전·신설 대상학교로 선정했다.

디오션시티, 신역세권 등 동북부 지역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유입학생 증가로 중학생 원거리 통학문제가 심화되자 군산교육지원청은 2021년 10월 '군산시 중학교군 학생배치계획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서부권 중학교의 이전·신설을 추진해왔다.

현 부지는 이전이 확정된 군산상일고 부지와 연계해 미래진로직업체험관, AR·VR스포츠센터, 유아(금)놀이터, 실내클레이밍 등 대규모 문화체험

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유아·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과 더불어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을 채워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희 교육장은 "군산시 중학생들의 배치 및 통학문제 해소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군산남중학교 학생과 학부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학교 이전·신설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 2027년 3월 이전·신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전주지초중등학교에서 전주 4학교군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의 교육 공감 토크'를 개최했다.

## “차별 없는 교육에 동의... 앞으로도 노력할 것”

### 서거석 교육감, 전주 학부모들과 교육 공감 토크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최근 교육현안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전주 학부모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교육청은 전주지연초등학교(교장 신순자)에서 전주 4학교군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 공감 토크'를 개최했다.

현장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이날 공감 토크에는 김명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과 이만수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각은학교 살리기 △기초학력 책임제 △교과권과 학생인권 균형화 조화 등 올해 10대 핵심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 학부모는 "에코시티 일대는 아이들도 많고 자동차도 많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 신호체계와 점멸등, 방지턱 등을 세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자녀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학부모는 "교육감이 바뀌어서 3월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볼 줄 알았는데, 전북만 유일하게 안 봤다"면서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물었다.

다른 학부모는 "이번에 아이를 고등학교에 입학시켰는데, 초·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지원이 다르다"면서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특성화고든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보연진의 경우 교육청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청, 시청 등과 협의해 신호체계, 점멸등, 방지턱 등을 잘 살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3월 모의고사와 관련해서는 "올해 모의고사를 치르지 못한 것은 2019년 특정 교원단체와의 협의 때문"이라며 "내년부턴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각급 학교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요구에는 "공·사립학교의 학생들 모두 전북의 아이들이다. 차별 없는 교육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를 위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나와 지구의 건강 살리는 레시피’

### 도교육청, '저탄소 채식식단 공모전'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저탄소 채식급식 확산을 위해 '채식식단 레시피 공모전'을 진행한다.

전북교육청은 '나와 지구의 건강을 살리는 학교급식 레시피'를 주제로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채식식단 레시피 공모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환경생태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은 육류 위주의 식습관으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들의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전북교육청의 저탄소 환경급식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이다.

응모 주제는 △나의 건강과 생태환경을 생각하는 채식식단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맛있는 채식식단 △내부의 비만을 함께 나누는 즐거운 채식식단 △우리가 가장 식재료를 활용한 로컬푸드 식단 등 4개 분야로 진행된다.

공모전에는 학교급식 관계자, 학생, 학부모 등 전북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완성된 요리사진과 요리법을 작성해 학교급식 관계자는 공문으로, 학생·학부모·일반도민은 이메일(yunil658@jedu.or.kr)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팀), 우수상 1명(팀), 장려상 3명(팀), 참가상 30명(팀)을 선정해 교육감상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레시피는 저탄소 환경급식 활성화를 위해 개발중인 '저탄소 환경급식 레시피 자료집'에 수록하고, 일선 학교에 배포해 학교급식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저탄소 채식레시피 개발·보급으로 로컬식재료를 학교급식에 다양하게 적용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저탄소 환경급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지구온난화 예방 등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는 채식 및 로컬식재료 식단 레시피 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 호신용 안전경보기 나눔 캠페인

전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 김병곤 이하 전북 학운협)는 최근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위급상황 시 안전경보기의 줄을 당겨 주세요!' 라는 주제로 호신용 안전경보기 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 학운협 주관으로 14개 시·군 초·중·고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은 호신용 안전경보기 나눔을 통해 학생들이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 주위의 관심을 유도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김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산학협력 새로운 모델 구축 '맞손'

### 우석대-비나텍, 미래에너지산업 발전 협약 체결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산학협력단과 비나텍(주)(대표이사 성도경)이 산학협력의 신(新)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비나텍(주)는 지난 26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비나텍(주)는 지난 26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우석대학교에서 정희석 산학협력단장과 박미라 부단장, 송창대·이창원 교수가, 비나텍(주)에서는 성도경 대표이사와 정갑수 기획실장이 참석했으며, 협력기관으로 서민강 ECO융합컴퓨션연구원과 박종현 탄소수소융합산업 연구조합 전무이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탄소기반 에너지 나노소재융합연구소를 중심으로 비나텍(주)와 △산학협력 프로그램 공동 운영 △산학협력 공동기술개발 △학생 인턴십 및 현장실습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양측은 베트남 현지에 세운 학당(한국어 교육) 개소를 공동주최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 및 현

장 근로자 채용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나서는 등 핵심 해외인재 양성 및 안정적 고용을 통한 생태계 인착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중지를 모았다.

정희석 산학협력단장은 "전북의 대표 미래에너지 선도기업인 비나텍(주)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양 기관의 인적자원과 노하우를 활용한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도경 대표이사는 "전북 지역의 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우수한 인재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유

학생들의 핵심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에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공동 발전과 미래에너지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1999년 설립된 비나텍(주)는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탄소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한 슈퍼커패시터와 수소연료전지 핵심소재인 지지체·촉매·막전극 복합체(MEA) 등을 생산하는 전북 탄소기업 최초의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지방부장

## 전주대, 미래에너지공학분야 인재 양성 박차

### 기계자동차융합공학부 신설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이하 전주대)는 이차전지 등 미래에너지공학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기계자동차융합공학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계자동차융합공학부는 기계자동차공학전공 및 미래에너지공학전공으로 구성되며, 정원은 40명으로 2024학년도에 신설하게 된다.

학과 신설은 2024학년도 학사편위 구조개편 결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는 정부뿐 아니라 전라북도 전략사업인 이차전지 특구지역 등 지자체의 주요 핵심 산업분야로 지정된 만큼 전주대는 관련 인재 양성에 주력하며 지역발

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교육과정도 기계자동차공학 전공은 친환경 모빌리티, 차량센서 공학, 자율주행자동차, AI차량융합기술 등의 교과목으로 구성되며, 미래에너지공학 전공은 이차전지, 수소 및 연료전지, 에너지전기화학, 신소재에너지 등 관련 교과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계자동차융합공학부는 수소연료전지 실험실습장, 자율주행차 플랫폼 기반 AI 실험장비, 풍력 및 태양광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충류 가시화 시스템, 유량 측정 및 비등 열전달 실험실 습장비 등 관련 실험실습 인프라를 구

축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주) 및 RIS 에너지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실습 장비를 지속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기계자동차공학과 원종섭 학과장은 "기계자동차공학과 관련한 분야, 자동차 및 에너지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지식을 습득하며 이를 융합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함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과 협업하여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며 전북의 잠재적 미래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생물자원 교육 · 연구 협력

### 전북대 식물방역대학원, 대만 중흥대와 MOU 병해충 검역 프로그램 개발 초점... 공동 연구

전북대학교 총장 양오봉) 식물방역대학원과 대만 중흥대학교(National Chung Hsing University)가 곤충 등 생물자원에 대한 전문 교육과 연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28일 대만 중흥대학교 현지에서 식물방역대학원 백승우 원장을 대신해 김재수 교수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을 갖고 곤충학과와 식물의학 프로그램(Master Program in Plant Medicine and Good Agricultural Practice) 등의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만 중흥대학교(National Chung Hsing University)는 1919년 농업 및 임업이 중심으로 설립된 대학으로, 현재 대만 내 대학순위 6위의 명문대학이다. 농과대학 등 8개 단과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및 천연자원 분야에서 실험 농장, 원예 실험장 등을 운영하는 등 농학 분야 연구와 교육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공동 연구와 교육 기술 지원 등을 위해 교수진과 연구원, 대학원생, 그리고 학술지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양 대학은 대만과 한국의 병해충 검역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춰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국제 연구실 설립과 NCHU 식물의학 프로그램, BK21 프로그램 간 국제회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병해충 발생에

### 진보교육단체

### 전북교육행동 출범

### 전북특자도 · 교육자치

### 확립 등 주제 제1차 포럼

전북교육행동(대표 양성호)이 출범식을 열고 교육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북교육행동은 지난 25일 전교조 전북지부 3층 회의실에서 백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출범식을 열고,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자치 확립'을 주제로 제1차 포럼을 진행했다.

전북교육행동은 '교육 공공성 강화, 평생교육 실현, 지역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진보적 교육시민모임의 성격을 띤 단체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호성 전주교대 교수와 차상철 교육연대 상임대표가 합류하여 과거로 회귀하는 전북교육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북교육을 같이 하기로 다짐했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제1차 포럼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자치 확립'을 주제로 대담이 진행되었는데 대담자로 나선 정재균 박사(전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교육자치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며 전북특별자치도모법과는 별도로 전북특자도 교육자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